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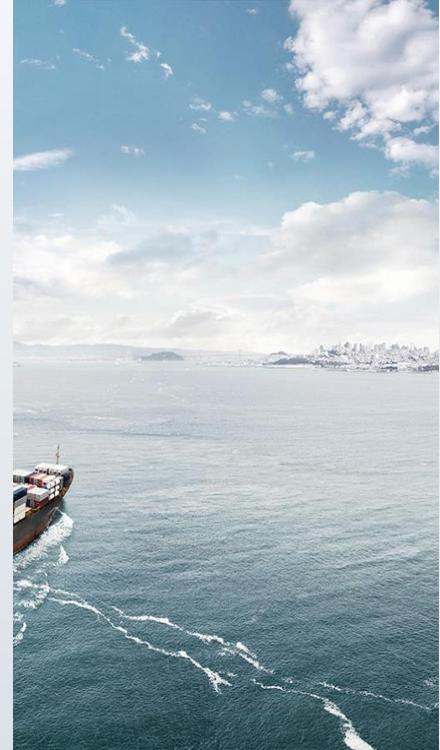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375

November 09, 2021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News	1
Bulk Carrier	5
Tankers	9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3
Key Indicators	16
Issue & Trend	18
Contact Details	20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NEWS

1. 12 년 만에 최고치 찍은 배값... 조선업계 “저가 수주는 옛말”

글로벌 조선업계 호황으로 신조선가가 12 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랫동안 국내 조선사들 실적의 발목을 잡아왔던 저가 수주 관행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조선사들은 높아진 선박 가격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3 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장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조선가지수는 152.28 포인트로 집계됐다. 올해 1 월 127.11 포인트와 비교하면 약 20% 오른 수준이다. 신조선가지수는 1998 년 전 세계 선박 건조 가격 평균을 100 으로 기준 잡아 지수화한 것으로, 높을수록 선가가 많이 올랐다는 의미다. 신조선가 지수가 150 포인트를 넘은 것은 조선 호황기였던 2009 년 7 월 이후 12 년 만이다.

선박 종류별로 살펴보면 벌크선의 신조선가지수는 올해 1 월 126.45 포인트에서 10 월 말 160.13 포인트로 27%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스 운반선은 134.99 포인트에서 15% 오른 155.67 포인트, 원유 운반선은 146.88 포인트에서 22% 오른 179.45 포인트, 컨테이너선은 76.37 포인트에서 25% 오른 95.96 포인트로 집계됐다.

신조선가가 올해 고공행진 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강화와 해운 운임 상승 여파로 선박 발주 수요가 대거 늘었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9 월 세계 선박 발주는 총 3754 만 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지난해 1~9 월 1332 만 CGT 에 비해 184% 증가했다. 극심한 불황기를 겪었던 2016 년 1~9 월과 비교하면 257%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연초부터 연말아 선박을 수주하면서 현재 2~3 년 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한 만큼, 수익성이 담보되는 일감만 선택적으로 수주할 수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조선사들이 가격 협상력을 쥐게 됐고 오히려 배를 골라서 주문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도 신조선가를 끌어 올리는 주요 원인이다. 선박 건조 비용의 20%에 달하는 후판(두께 6 mm 이상의 두꺼운 철판)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와 철강업계는 매년 반기마다 후판 가격을 협상하는데, 철강사들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후판 가격을 톤(T)당 60 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약 66%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후판 가격이 톤당 100 만원을 넘어선 건 2011 년 이후 처음이다. 조선사들은 높아진 가격 협상력을 바탕으로 후판 가격 상승분을 선가에 반영하는 추세다.

I . NEWS

조선업계는 선박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저가 수주 관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2000년대 초반 조선업계 슈퍼사이클(초호황) 당시 앞다퉈 설비 증설에 나섰으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발주가 끊기자 저가 수주에 나섰다. 이때 출혈 경쟁에 따른 수익 악화를 견디지 못한 성동조선, STX 조선해양 등은 법정 관리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특히 저가 수주는 원청뿐 아니라 중소 하청, 기자재 업체들까지 연쇄 타격을 줘 국내 조선산업을 휘청이게 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당시 국내 조선소들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사들과도 경쟁하느라 도크는 채워도 수익이 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다행히 업황이 회복하면서 지금은 원하는 가격에 선박을 주문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선업계는 신조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반응이다. 선가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발주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8월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석유공사 애드녹의 해운 자회사 애드녹 엘엔에스는 선가가 너무 올라 5척의 액화천연가스(LNG)선 신조 입찰을 연기한 바 있다.

2. 선가와 운임으로 미래의 해운시황을 예측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 신홍식)는 선박가격과 해상운임의 비율(선가-운임 비율)을 통해 미래 해운시황 변동을 예측한 연구논문을 SSCI 국제학술지 MARITIME POLICY & MANAGEMENT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연구논문의 제목은 'WHAT MOVES SHIPPING MARKETS: A VARIANCE DECOMPOSITION OF PRICE-CHARTER RATIOS'으로, 캠코와 한국해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이번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가와 운임의 이론적 관계를 활용해 해운시황 변동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실무적으로 미래 해운시황 예측에 따른 해운업 투자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캠코는 연구에서 건화물(DRY CARGO) 중고선 선가-운임 비율은 장기적으로 평균회귀현상을 보이며, 평균을 기준으로 선가-운임 비율 등락의 98.4%는 선가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선가-운임 비율과 평균값 차이를 통해 해운 시장 파악과 미래 선가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캠코는 연구결과에 따라, 선가-운임 비율분석을 통해 선가가 운임대비 저평가 또는 고평가됐는지 국면

I . NEWS

파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평균회귀를 고려해 투자 및 리스크 관리 전략을 펼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흥식 캬코 사장 직무대행은 “코로나 19 이후 해운시장은 글로벌 환경 규제 등 구조적 변화를 맞아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캬코는 앞으로도 해운 시황에 대응해 중소해운사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캬코는 2009년부터 28개 해운사 선박 125척에 1조 8152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국적선사 소유 선박의 해외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3. 대한해운, 선원 전문심리치료사 채용

SM 그룹(회장 우오현)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이 장기간 승선 및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선원들의 심리치료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 심리치료사를 채용한다.

대한해운은 이를 위해 심리치료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를 고용, 대면 상담 및 메신저를 활용한 비대면 심리치료를 통해 고위험도군 해상직원 집중 관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한해운은 현재 선원 본인 및 동료들의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전파해 건강한 승선 생활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번 전문심리치료사 채용을 계기로 지속적인 선박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해운 김만태 대표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처는 물론 중대재해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전담팀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지속적으로 선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I . NEWS

4. 공정위, '선박엔진 운송입찰 담합' 3 개사에 과징금 49 억원

9 년간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해온 운송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종, 동방, 세방 등 3 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9 억 100 만원을 부과한다고 7 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8~2016 년 두산엔진(현 HSD 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과 '지게차 등 사내 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했다.

이 사건 전에 두산엔진은 중량물 운송용역 수행사업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운송용역은 세종이 전담하면서 용역 업무 중 하역 업무는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했고, 3 개 사는 매년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8 년부터 두산엔진이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꾸자, 이들 회사는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경쟁으로 계약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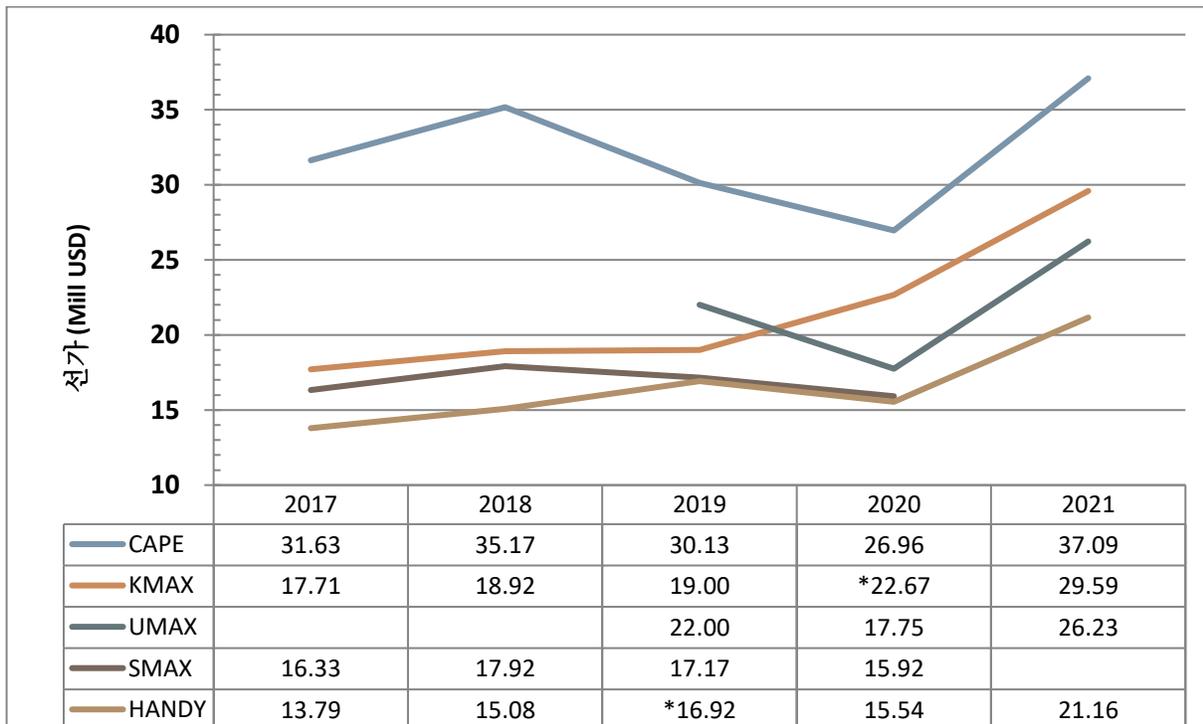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

연평균 선가	2017	2018	2019	2020	2021
Capesize (180K)	31.63	35.17	30.13	26.96	37.09
	31.43%	11.20%	-14.34%	-10.51%	37.59%
Kamsarmax (82K) (*based on 76K until 2019)	17.71	18.92	19.00	*22.67	29.59
	29.57%	6.82%	0.42%	19.30%	30.55%
Ultramax (60-61K) (from 2019)			22.00	17.75	26.23
				-19.32%	47.76%
Supramax (58K) (until 2020)	16.33	17.92	17.17	15.92	--
	25.44%	9.69%	-4.20%	-7.28%	--
Handysize (37K) (*based on 32K until 2018)	13.79	15.08	*16.92	15.54	21.16
	38.78%	9.37%	12.18%	-8.13%	36.14%

□ BC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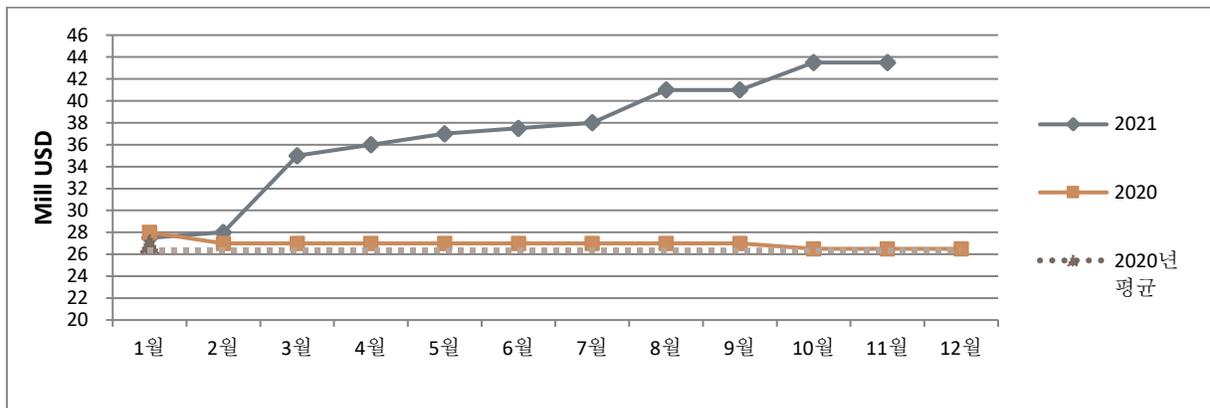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2021 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평균
CAPE (180K)	선가	27.50	28.00	35.00	36.00	37.00	37.50	38.00	41.00	41.00	43.50	43.50	37.09
	전월대비	3.8%	1.8%	25.0%	2.9%	2.8%	1.4%	1.3%	7.9%	0.0%	6.1%	0.0%	--
	전년대비	-1.8%	3.7%	29.6%	33.3%	37.0%	38.9%	40.7%	51.9%	51.9%	64.2%	64.2%	37.6%
KMAX (82K)	선가	24.00	25.00	27.00	27.00	28.00	29.50	30.50	31.50	33.00	35.00	35.00	29.59
	전월대비	9.1%	4.2%	8.0%	0.0%	3.7%	5.4%	3.4%	3.3%	4.8%	6.1%	0.0%	--
	전년대비	2.1%	8.7%	17.4%	17.4%	21.7%	31.1%	35.6%	37.0%	46.7%	59.1%	59.1%	30.5%
UMAX (60-61K)	선가	20.00	20.50	22.50	22.50	24.00	26.50	28.50	30.00	31.00	31.50	31.50	26.23
	전월대비	12.7%	2.5%	9.8%	0.0%	6.7%	10.4%	7.5%	5.3%	3.3%	1.6%	0.0%	--
	전년대비	--	--	--	--	--	--	--	--	--	--	--	--
HANDY (37K)	선가	14.75	16.25	19.25	20.00	20.00	20.50	22.50	24.00	24.50	25.50	25.50	21.16
	전월대비	0.0%	10.2%	18.5%	3.9%	0.0%	2.5%	9.8%	6.7%	2.1%	4.1%	0.0%	-
	전년대비	-13.2%	-4.4%	13.2%	17.6%	29.0%	36.7%	55.2%	65.5%	66.1%	72.9%	72.9%	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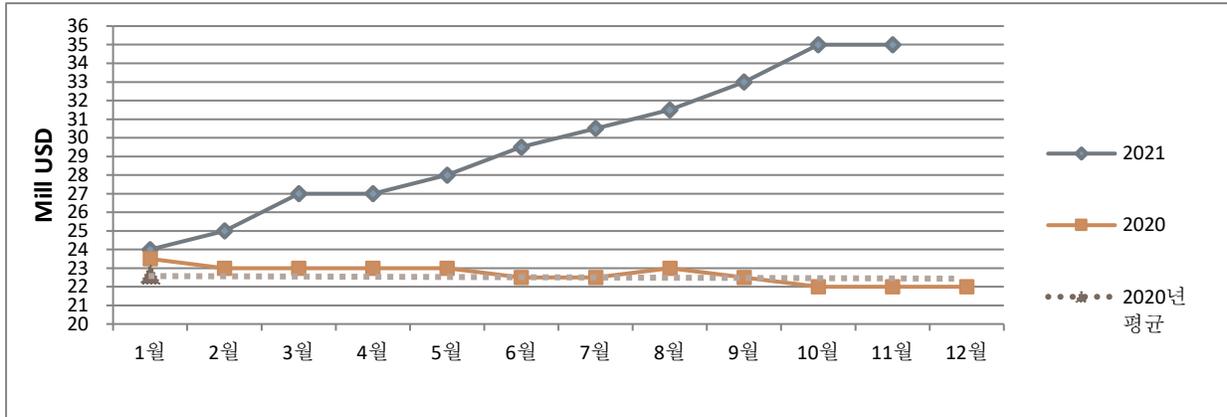
2020 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평균
CAPE (180K)		28.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6.50	26.50	26.96
KMAX (82K)		23.50	23.00	23.00	23.00	23.00	22.50	22.50	23.00	22.50	22.00	22.00	22.67
SMAX (58K)		17.00	16.50	16.50	16.50	16.00	15.50	15.50	15.50	15.50	15.50	15.50	15.92
HANDY (37K)		17.00	17.00	17.00	17.00	15.50	15.00	14.50	14.50	14.75	14.75	14.75	15.54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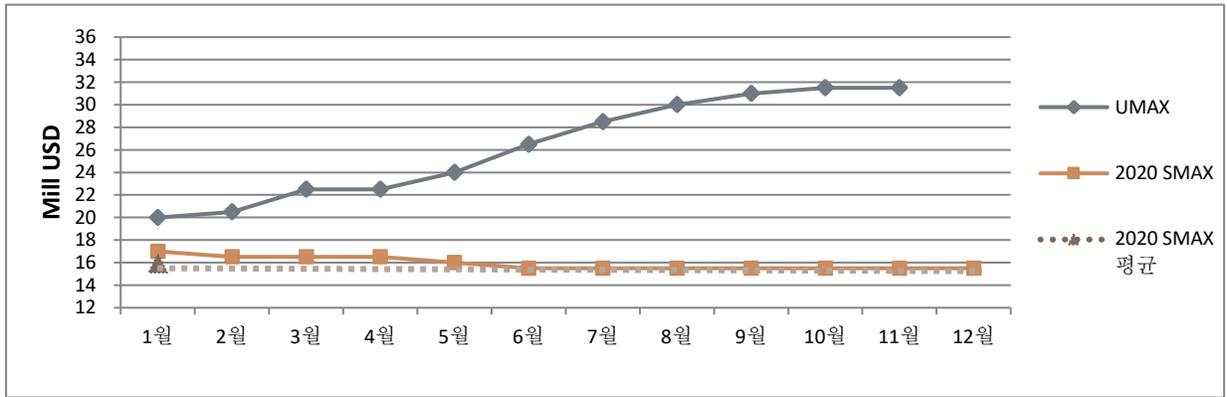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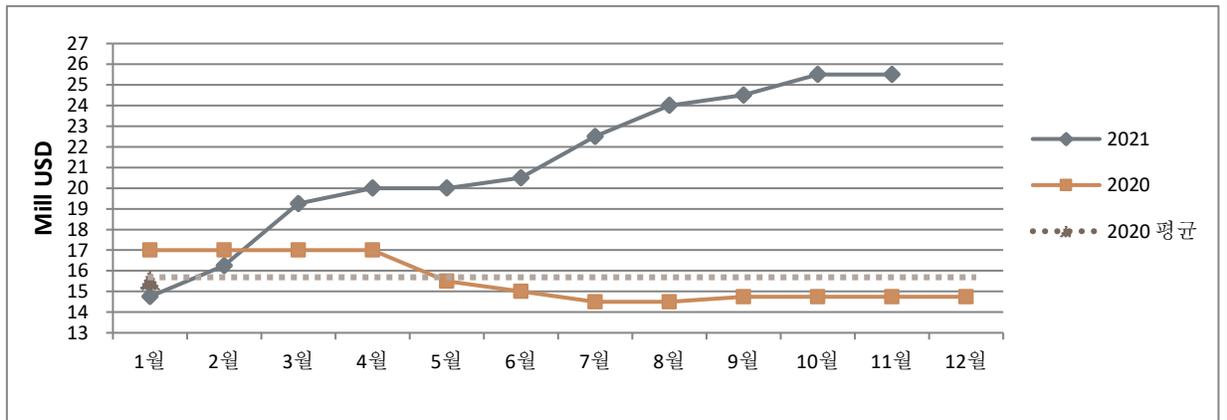
□ Kamsarmax



□ Ultr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MP THE KRAFT	208,000	2021	CHINA	B&W		65	Singaporean buyer, BWTS fitted
BC	MP THE HIGHTOWER	207,999	2020	CHINA	B&W		65	
BC	OCEAN ROSEMARY	82,265	2013	CHINA	B&W		23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BC	SEACON SHANGHAI	82,000	2019	CHINA	B&W		38	
BC	MAJULAH HARBOURFRON	81,922	2014	CHINA (JPN)	B&W		31	Far Eastern buyer, eco M/E, BWTS fitted
BC	SHANDONG CHONG WEN	76,098	2011	CHINA	B&W		19.64	Chinese auction sale
BC	SUNLEAF GRACE	61,683	2011	JAPAN	B&W	C 4x30t	21.5-22.0	Undisclosed buyer
BC	SOPHIA N	56,868	2009	CHINA	B&W	C 4x30t	17.75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BC	BLUEWAYS	46,658	1998	JAPAN	B&W	C 4x30t	8	Undisclosed buyer
BC	SPRING BREEZE	33,847	2013	CHINA	B&W	C 4x30t	15.6-15.9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BC	ORTOLAN BETA STRAIT	29,974	2010	CHINA	WART	C 3x30t	--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Laker
BC	BERNA	21,969	1995	INDIA	MITSU	C 4x30t	6.1-6.2	Undisclosed buyer
GC	MARIWIT	12,190	2009	CHINA	HANSH	C 2x30t, D 2x25t	5.8	Chinese buyer, tween-deck
GC	MIGHTY CHAMP	10,084	2005	JAPAN	B&W	C 2x30.7t, D 1x30t	6	Undisclosed buyer, tween-deck
GC	MIGHTY BOSS	10,074	2004	JAPAN	MAK	C 2x30.7t, D 1x30t	6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tween-d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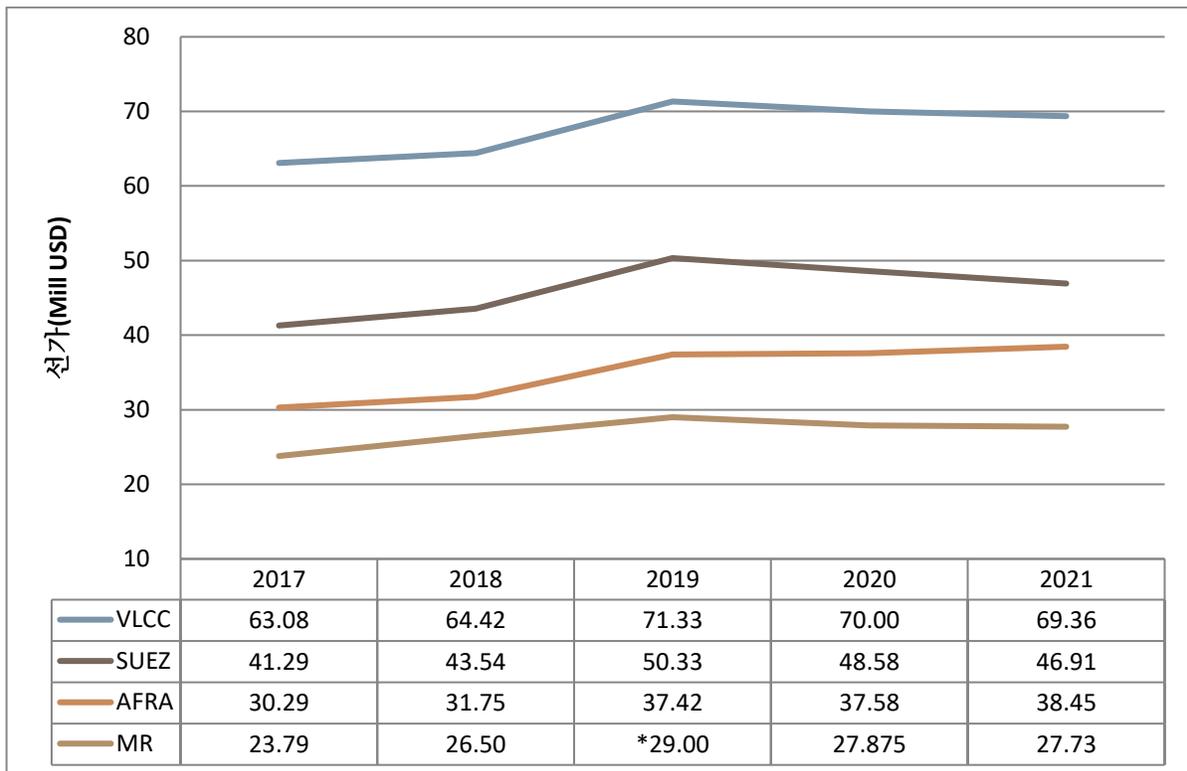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VLCC (310K)	63.08	64.42	71.33	70.00	69.36
	-6.89%	2.11%	10.73%	-1.87%	-0.91%
Suezmax (160K)	41.29	43.54	50.33	48.58	46.91
	-15.15%	5.45%	15.60%	-3.48%	-3.45%
Aframax (105K)	30.29	31.75	37.42	37.58	38.45
	-15.66%	4.81%	17.85%	0.45%	2.32%
MR (51K) <small>*18 년까지는 49K 기준</small>	23.79	26.50	*29.00	27.87	27.73
	-4.19%	11.38%	9.43%	-3.88%	-0.53%

□ TANKER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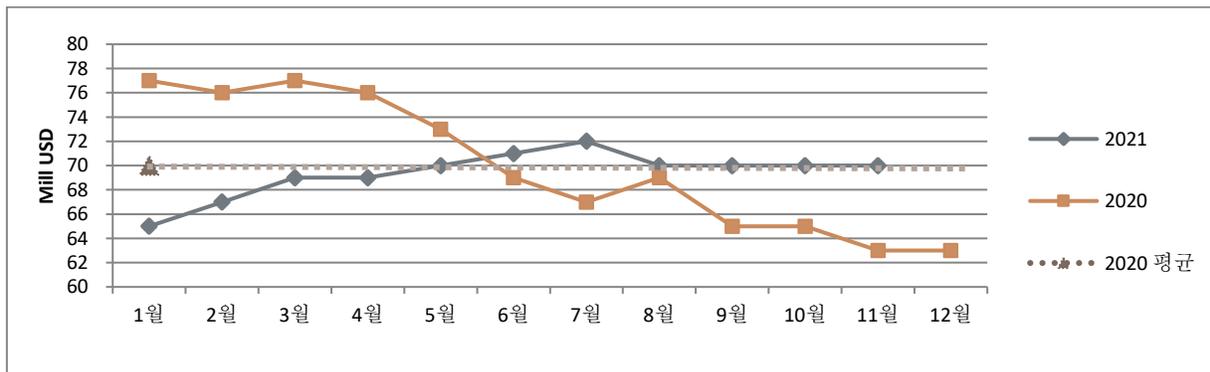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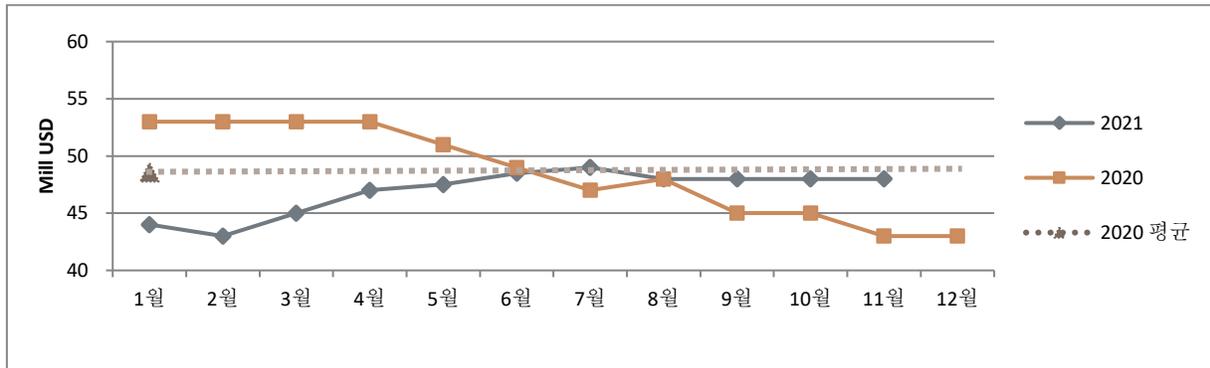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VLCC 310K	선가	65.00	67.00	69.00	69.00	70.00	71.00	72.00	70.00	70.00	70.00	70.00	69.36
	전월대비	3.2%	3.1%	3.0%	0.0%	1.4%	1.4%	1.4%	0.0%	0.0%	0.0%	0.0%	-
	전년대비	-15.6%	-11.8%	-10.4%	-9.2%	-4.1%	2.9%	7.5%	7.7%	7.7%	7.7%	11.1%	-0.9%
SUEZ 160K	선가	44.00	43.00	45.00	47.00	47.50	48.50	49.00	48.00	48.00	48.00	48.00	46.91
	전월대비	2.3%	-2.3%	4.7%	4.4%	1.1%	2.1%	1.0%	0.0%	0.0%	0.0%	0.0%	-
	전년대비	-17.0%	-18.9%	-15.1%	-11.3%	-6.9%	-1.0%	4.3%	6.7%	6.7%	6.7%	11.6%	-3.4%
AFRA 105K	선가	33.00	33.00	37.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38.45
	전월대비	1.5%	0.0%	12.1%	8.1%	0.0%	0.0%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19.5%	-22.4%	-12.9%	-5.9%	0.0%	6.7%	11.1%	14.3%	21.2%	21.2%	23.1%	2.3%
MR 51K	선가	27.50	27.50	27.50	27.50	27.50	27.50	28.00	28.00	28.00	28.00	28.00	27.73
	전월대비	5.8%	0.0%	0.0%	0.0%	0.0%	0.0%	1.8%	0.0%	0.0%	0.0%	0.0%	-
	전년대비	-8.3%	-11.3%	-11.3%	-8.3%	-1.8%	0.0%	5.7%	7.7%	7.7%	7.7%	7.7%	-0.5%
20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VLCC		77.00	76.00	77.00	76.00	73.00	69.00	67.00	69.00	65.00	65.00	63.00	70.00
SUEZ		53.00	53.00	53.00	53.00	51.00	49.00	47.00	48.00	45.00	45.00	43.00	48.58
AFRA		41.00	42.50	42.50	42.50	40.00	37.50	36.00	36.00	35.00	33.00	32.50	37.58
MR		30.00	31.00	31.00	30.00	28.00	27.50	26.50	26.50	26.00	26.00	26.00	27.88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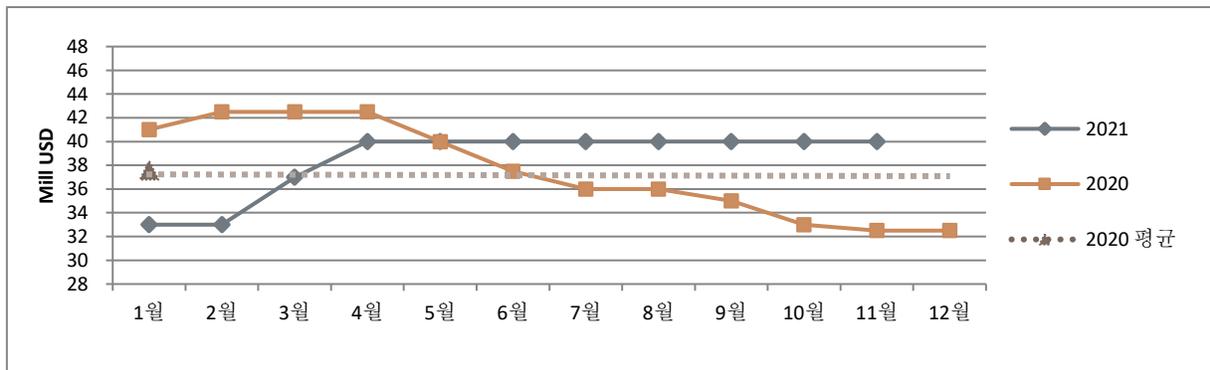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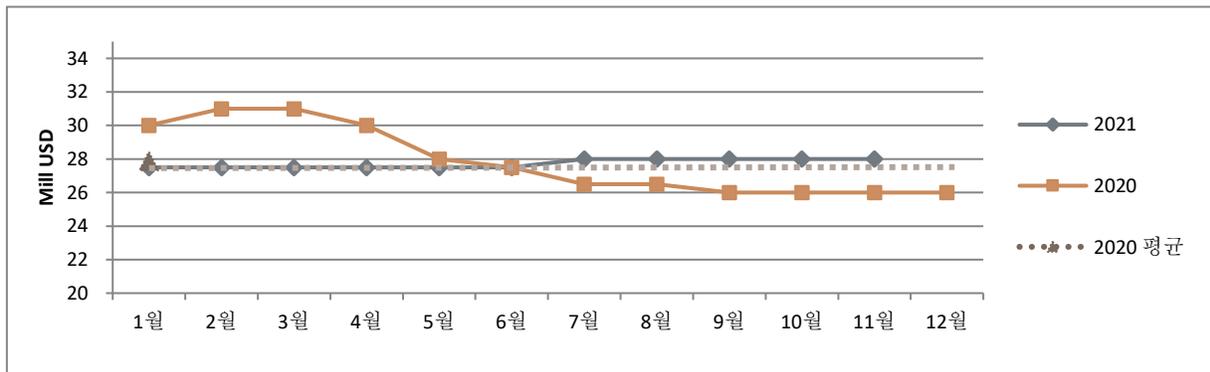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Tanker Sales Report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SEAWAYS SAUGERTIES	152,293	2006	KOREA	B&W		21.8	European buyer
TANKER	ATALANDI	105,306	2004	KOREA	B&W		13.6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Coiled
TANKER	IRIS VICTORIA	75,000	2010	JAPAN	B&W		17.35-17.75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TANKER	TAI HU	73,400	2007	CHINA	B&W		10.4-10.5	Undisclosed buyer
TANKER	STAR FALCON	53,815	2007	JAPAN	MITSU		9.75-10.00	Undisclosed buyer
TANKER	STAR EAGLE	51,213	2007	KOREA	B&W		11.75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TANKER	HIGH VENTURE	51,000	2006	KOREA	B&W	2&3	10.7	Indian buyer, BWTS fitted, Epoxy coated
TANKER	ANGEL 61	48,635	2006	JAPAN	B&W		9.8	Greek buyer, BWTS fitted, Uncoiled
TANKER	CHEMSTAR JEWEL	21,313	2012	JAPAN	MITSU		--	UK based buyer, BWTS fitted, stainless steel
TANKER	BOW FULING	9,156	2012	CHINA	B&W		--	
TANKER	BOW NANGANG	9,124	2013	CHINA	B&W		--	Undisclosed buyer, stainless steel
TANKER	BOW DALIAN	9,124	2012	CHINA	B&W		--	
OIL/CHEM	BAUCI	37,320	2002	KOREA	B&W		6.3	Undisclosed buyer
LPG	SUNNY GREEN	20,667	1992	JAPAN	MITSU		18.5	Undisclosed buyer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CARTAGENA TRADER	42,056	2008	CHINA	B&W	3534	TEU	--	French buyer (CMA CGM)
CONT	ASTURIANO II	16,589	2012	CHINA	B&W	1368	TEU	--	UAE based buyer (Safeen Fee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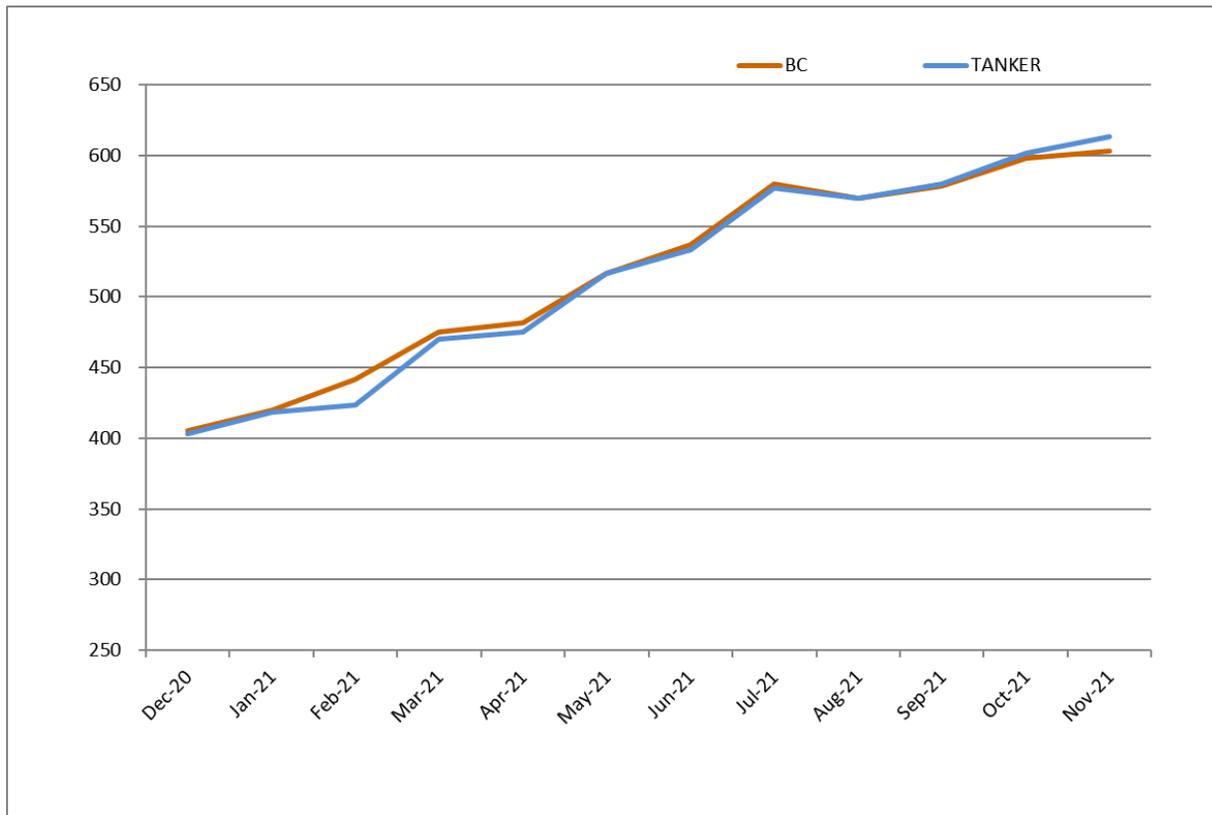


IV. DEMOLITION

1) 해체선가

	2019		2020		2021		2020.11	2021.11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USD/LDT	MoM	YoY
TANKER	396.39	-8.4%	344.44	-13.1%	525.30	52.5%	390.00	613.33	2.0%	57.3%
BC	398.75	-9.5%	344.58	-13.6%	527.42	53.1%	395.00	603.33	0.9%	52.7%

❖ 기준 : 인도 해체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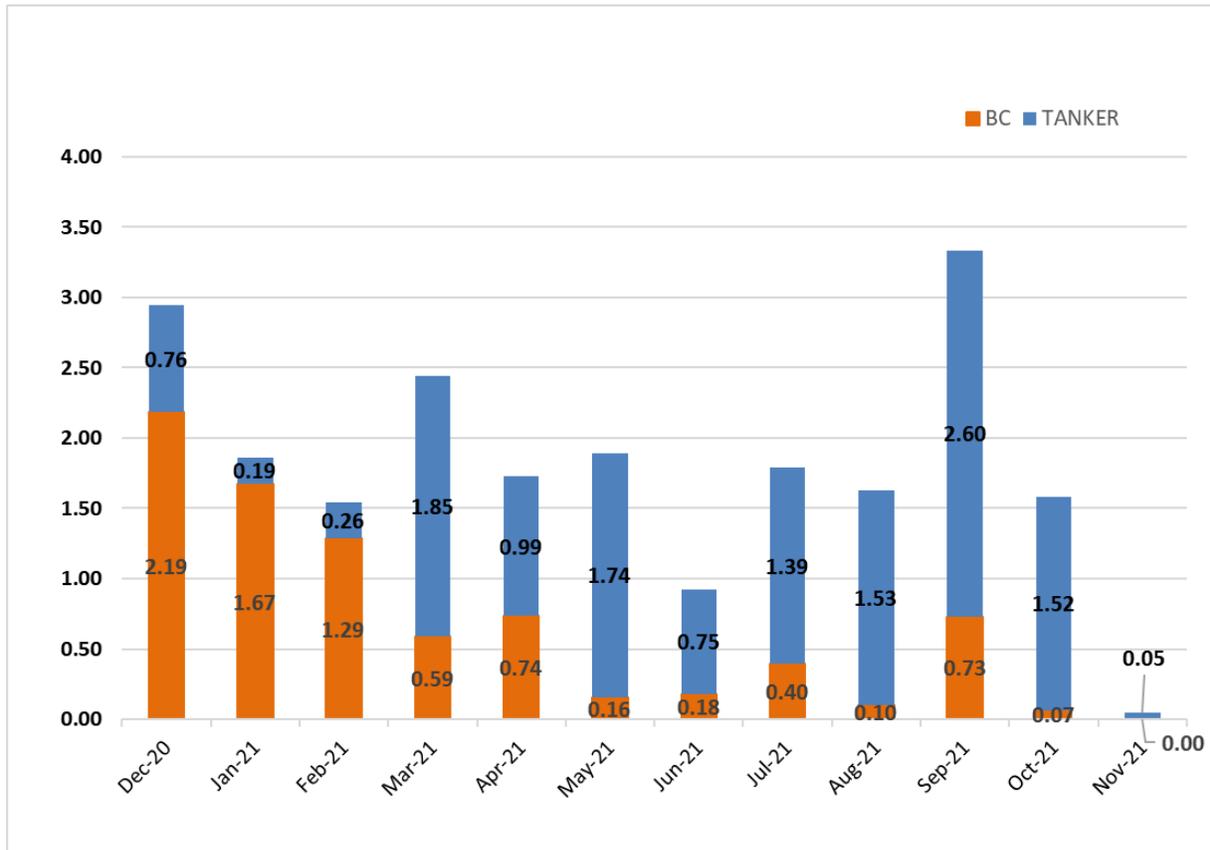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 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9		2020		2020.11		2021.11			
	Million DWT	No.	Million DWT	No.	Million DWT	No.	Million DWT	YoY	No.	YoY
TANKER	3.54	97	3.68	112	0.66	18	0.05	-92.8%	1	-94.4%
BC	7.45	116	15.61	164	0.30	10	0.00	-100.0%	0	-100.0%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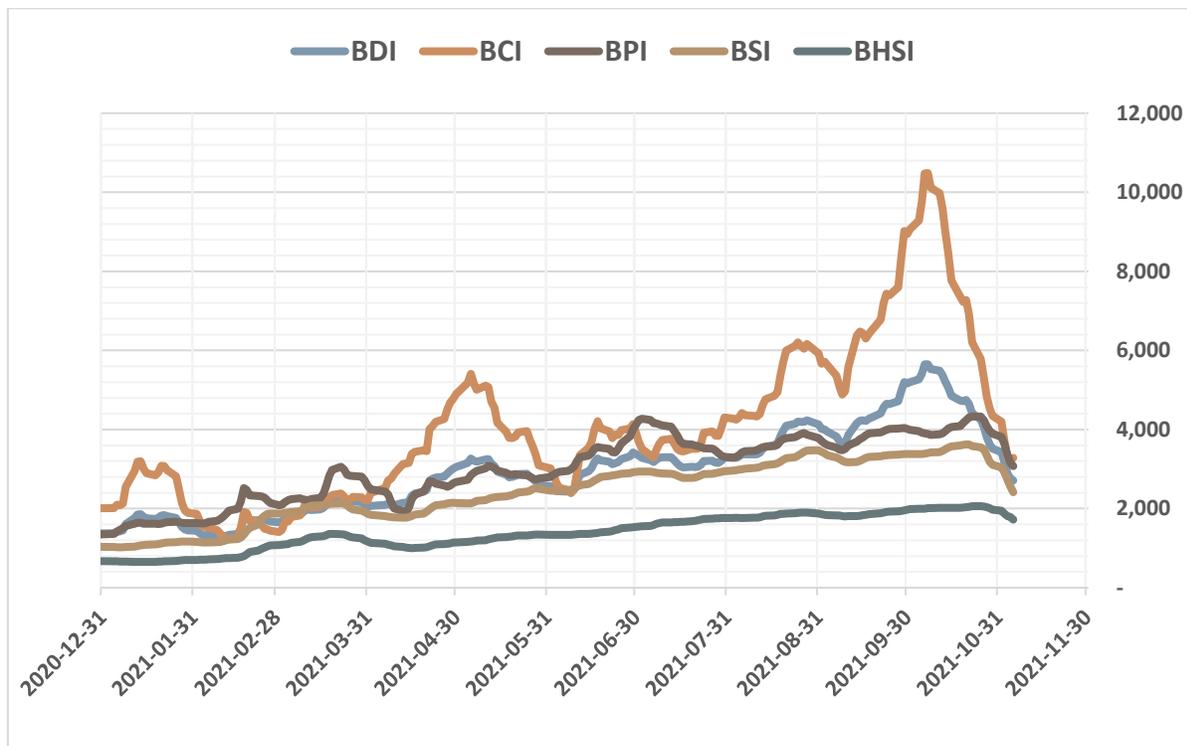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CHEMICAL	WIN LOTUS	7,078	2,468	1990	JAPAN	AKASAKA	695	INDIA, incl. stainless steel coated center tanks & coils
TANKER	OSTROV RUSSKIY	7,119	2,197	1985	JAPAN	MITSU	685	BANGLADESH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21-11-05	2021-10-29	CHANGE	1 Year High	1 Year Low
BDI	2,715	3,519	▼804.00	5,650	1,111
BCI	3,280	4,349	▼1,069.00	10,485	1,241
BPI	3,071	3,896	▼825.00	4,328	1,165
BSI	2,416	3,104	▼688.00	3,624	882
BHSI	1,726	1,972	▼246.00	2,062	553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VLSFO	606.00	▼11.00	570.50	▼19.00	587.00	▼36.50
MGO	700.00	▼4.00	682.50	▼20.00	734.00	▼10.50
LSMGO	688.50	▼15.50	674.00	▼17.00	-	-
IFO380	462.00	▼12.00	439.00	▼26.50	462.50	▼18.00

❖기준일 : 11 월 5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21-11-05	2021-10-29	CHANGE
미국 달러	1180.00	1171.70	▲8.30
일본 엔(100)	1036.54	1031.65	▲4.89
유로	1363.14	1368.78	▼5.64
중국 위안	184.40	183.08	▲1.32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ISSUE & TREND

[시사상식] 스포츠케이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후 해외여행에 제약이 생기면서 등장한 개념으로, 스포츠와 레저를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를 떠나는 트렌드를 뜻한다. 자신이 즐기고 싶은 운동을 중심으로 휴가 장소와 숙소, 일정, 예산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자기관리에 관심이 많은 MZ(밀레니얼 + Z세대) 세대에서 스포츠케이션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골프장 투어를 위해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숙소를 정하거나 서핑을 하기 위해 유명한 해수욕장으로 휴가지를 선택하는 식이다. 최근 호텔업계와 여행업계에서는 스포츠케이션을 활용한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신라호텔은 숙박과 더불어 호텔 내 피트니스센터에서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고 파라다이스호텔은 야외 익스트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편 루지' 패키지를, 반얀트리 호텔은 선수들에게 농구 레슨을 받는 '반얀트리 AAB 농구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관련뉴스] '위드 코로나'가 온다...MZ 세대 여행 "관광보다는 체험"

여가 액티비티 플랫폼 프립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특정 취향이 반영된 액티비티 중심의 여행상품 강화에 나선다.

지난 28일 프립에 따르면 개인의 취향과 개성이 반영된 특수목적관광(SPECIAL INTEREST TOURISM-SIT) 상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확고한 취향을 가진 MZ 세대를 중심으로 여행 계획의 우선순위가 구경(SEEING)에서 체험(DOING)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프립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MZ 세대의 72.4%가 휴가 동안 "액티비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프립 내 액티비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프립 이용자를 살펴보면 올해 3분기(7~9월) 서핑 판매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70% 넘게 증가했다. 캠핑 판매량은 160% 이상 늘었다. 해외 바다에서 주로 즐기던 프리다이빙 역시 약 46% 증가했다.

하늘길이 막히자 국내에서도 해외 못지않은 특별한 경험과 액티비티를 즐기려는 수요가 반영된 것이다.

VI. ISSUE & TREND

액티비티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각 호스트가 선보이는 액티비티 상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등산, 서핑, 캠핑, 프리다이빙, 요가 등 프리프의 주요 액티비티는 지난해 1 분기(1~3 월)부터 올해 3 분기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3 분기와 올해 3 분기를 비교해보면 캠핑은 전년 대비 2 배(98%) 가까이 늘었다. 이어 등산(35%), 프리다이빙(32%), 요가(31%), 서핑(30%) 순으로 증가했다.

일과 휴가가 결합된 워케이션(WORK+VACATION), 운동과 휴가가 결합된 스포츠케이션(SPORTS+VACATION)과 같은 원격근무에 익숙하고 자기관리에 관심이 높은 MZ 세대를 위한 상품도 각광을 받고 있다. 프리프는 제주도 각 지역 숙소와 제휴를 맺고 각 콘셉트에 맞는 액티비티가 결합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임수열 프리프 대표는 "과거의 여행이 단순히 미지의 세계를 방문하는 것에 그쳤다면 MZ 세대들은 분명한 목적과 취향을 경험하기 위한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어디서든 개별 취향에 맞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NEWSIS]



VII. CONTACT DETAILS

STL SHIPPING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Email. snp@stlkorea.com	
CEO Neal S.I. Kwon (대표이사 권순일) Tel. 070-7771-6410	

STL GLOBAL CO., LTD.		
Email. seoul@stlkorea.com		
Chartering biz@stlkorea.com	Sancho Kim (이사 김현진) Director Tel. 070-7771-6404	Mike Hong (부장 홍창목)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Fleet Operation biz@stlkorea.com	H.S. Lee (부장 이현성)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2	
Research & Operation snp@stlkorea.com	Anna Lee (과장 이해란) Manager Tel. 070-7771-6403	Joovi Park (대리 박주비) Assistant Manager Tel. 070-7771-6419
Agency Operation operation@stlkorea.com	Henry S.H.Oh (차장 오수현)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2	Jennifer Park (과장 박영단) Manager Tel. 070-7771-6407
Ferroalloy Logistics & Warehouse Management ops@stlkorea.com	Jena Ahn (차장 안지영)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5	Joanne Jin (과장 진정식) Manager Tel. 070-7771-6406

에스티엘 지투어_STL G TOUR		전남요트아카데미_Jeonnam Yacht Academy	
tour@stlgtour.com		academy@stlyacht.com	
기업/일반 단체 항공예약 실장 김영하	Tel. 1661-8388 Tel. 070-4800-0151 Fax. 02-6499-8388 www.stlgtour.com	보트/요트 면허취득 실장 이진행	Tel. 061-247-0331 Tel. 010-2777-4027 Fax. 061-247-0333 www.stlyacht.com